

데니스 유리에비치 셰펠(Denis Shepel) 인터뷰: 라코프스키 다중파동 발진기(MWO)

## 제1파트: 진행자 — 도입부 및 배경 질문

**진행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조르주 라코프스키(Georges Lakhovsky)의 전설적인 기기인 발진기(Oscillator)를 재현하는 데 성공한 발명가 데니스 유리에비치 셰펠(Denis Yurievich Shepel) 씨와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 기술과 전자기기 등이 발전하면서 오늘날의 모델(우리 뒤편에 부분적으로 전시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만)은 100년 전에 발명된 원래의 기기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요? 원본 역사적 사진에 직접 찍힌 모습과는 원칙적으로 외관상 완전히 달라 보이는데요.

---

## 제2파트: 엔지니어 — 현대적 부품의 도입, 직관적 영감과 기술의 본질

**엔지니어(데니스):** 현대적인 기술들이 사용되었습니다 ... 또한 21세기인 오늘날 이러한 기술을 재현할 때, 끝없는 불꽃 속에서 무시무시하고 시끄러운 소음을 내던 기존의 스파크 갭(spark gap) 방전기 대신 3D 모델링과 강력하고 조용한 트랜지스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현대적인 재료와 정밀 부품들 덕분에 MWO(다중파동 발진기) 세션을 받는 사람은 기기가 완벽하게 소음 없이 작동하므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며 깊은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존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세션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몇 가지 장점을 더 갖추고 있죠.

하지만 기술을 복원하는 데 어떤 구체적인 부품이 사용되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점을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20세기 초(또는 중반)에 조르주 라코프스키가 정립한 아이디어의 본질입니다. 그 시대에는 오늘날 우리가 가진 분광기나 오실로스코프 같은 정밀 도구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 아이디어는 전적으로 직관에서 영감을 얻은 천재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기기가 작동하는 정확한 주파수 범위조차 알지 못했고, 오직 수학적으로 주파수를 계산해 냈습니다.

그는 상호작용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다는 전제하에 고리의 둘레를 기반으로 특정 공식을 사용하여 어떤 주파수를 에너지로 채워야 하는지 직관적으로 찾아냈습니다 ... 그냥 평범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이 아이디어의 천재적인 핵심은 기기 자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존의 전자기적 진동을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점에 있습니다.

---

## 제3파트: 진행자 — 빛과 전자기 진동의 관계

**진행자:** 아주 미미하게라도 만들어지기는 하지 않나요? 어떤 의미에서는 빛조차도 일종의 전자기적 진동으로 분류되니까요.

---

## 제4파트: 엔지니어 — 전류 세기와 자기 매질 교란의 함정

**엔지니어(데니스):** 바로 그 부분에 거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현대인이 보편적으로 이해하는 전자기적 진동은 자기 매질(magnetic medium)에 가해지는 매우 강력한 교란을 의미합니다. 빛을 예로 드셨는데, 빛은 사실상 전위(potential)의 파동입니다. 즉, 여기서는 자기적 성분을 진동시키기 위해 인위적으로 사용되는 전류의 세기(current strength)가 지극히 미미합니다.

인류는 20세기 말과 현재 21세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매질을 강하게 교란하는 방식에만 깊이 몰두해 왔습니다. 자기 매질을 교란하려면 반드시 강한 전류의 세기를 가해야 하니까요. 반면 생명체가 받아들이기에 적합하고 이로온 모든 기술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은 니콜라 테슬라(Nikola Tesla)가 언급한 바 있으며, 아르센 다르송발(Arsène d'Arsonval)의 연구를 통해서도 증명되었습니다.

---

## 제5파트: 진행자 — 생체 친화적 기술과 스칼라장

**진행자:** '생명체가 이롭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스칼라장(scalar field)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과학계가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스칼라장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

## 제6파트: 엔지니어 — 대자연의 언어: 고전압과 제로(0) 전류

**엔지니어(데니스):**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천재적 아이디어는 생명체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전하, 즉 자연의 전류 혹은 대자연과 유사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것이었습니다. 네, 실제로 자연의 원리와 매우 닮아 있습니다. 즉, 대자연은 전류의 세기가 아니라 전기장의 강도(intensity)와 전압(voltage)을 통한 매질의 교란을 통해 '대화'합니다.

예를 들어, 뇌우가 치는 날 실외를 걸어 다니면 거대한 에너지 전하를 받게 됩니다. 모든 생명체가 이 거대한 에너지를 받죠. 수백만, 때로는 수천만 볼트의 전위를 가진 구름이 머리 위로 흘러갑니다. 하지만 파괴적인 방전(벼락)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전류의 세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오직 전기장의 강도만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

## 제7파트: 진행자 — 일반인의 관점: 수만 볼트 고전압의 진실

**진행자:** 말씀을 가로막아 죄송합니다만, 바로 그 전압에 대해 여쭙보고 싶었습니다.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자면, 이 기기 역시 말씀하신 구름처럼 약 10,000볼트 수준의 전압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신가요? 전압은 10,000볼트에 달하지만 전류의 세기는 매우 낮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이 맞습니까?

---

## 제8파트: 엔지니어 — 일상 속 전자파의 위해성과 세포 간 공명 통신

**엔지니어(데니스):** 정확히 그 예시입니다 ... 조르주 라코프스키 해법의 천재성은 생명체에게 흔히破坏적인 힘으로 작용하는 자기적 진동을 만들어내지 않는 데 있습니다. 벽면의 배선이나 콘센트처럼 말이죠. 일반적인 솔레노이드, 코일, 송신기들은 강력한 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것이 교류 자기장이라면 특정 전위가 아니라 자기 매질을 교란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TV, 무선 전화기, 스마트폰, Wi-Fi, 블루투스 등은 모두 라디오 주파수(RF) 상에서 정보를 교환하는 범주에 속합니다. 이 라디오 주파수들은 낮은 전압과 높은 전류로 인해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기적 교란입니다.

반면 생명체(식물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생물)에게 이롭게 작용하는 기기들은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매우 미미한 전류와 매우 높은 전압을 사용하죠. 본질적으로 이는 진동하는 전장 전위(field potential)입니다. 이 기기에서 전위가 진동하는 범위는 조르주 라코프스키가 세포 간 통신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고 저술했던 바로 그 주파수 영역대이며, 그의 예측은 완벽히 적중했습니다. 즉, 주파수 공명(resonance)을 통해 세포들 사이에 정보 교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세포들은 각기 다른 주파수에서 소통합니다.

---

## 제9파트: 진행자 — 세포 주파수의 구체적인 범위와 측정

**진행자:** 현재 그 구체적인 주파수들이 명확히 밝혀져 있나요? 몇 헤르츠(Hz)부터 기가헤르츠(GHz)까지인가요? 만약 측정하려 한다면... 혹시 직접 측정해 보셨습니까?

---

## 제10파트: 엔지니어 — 줄기세포의 수수께끼와 동일 DNA의 다른 공명

**엔지니어(데니스):** 그 방면의 연구는 현재도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정보 교환과 세포 간 통신의 정확한 메커니즘과 그 순간은 아직 온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찬반 의견이 모두 존재하죠.

하지만 줄기세포를 예로 들면, 줄기세포는 모두 동일하고 특정 기능적 부하가 없으며 같은 DNA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는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몸 안의 모든 세포는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명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즉, 각자 자기가 위치한 자리에서 어떻게 정확히 작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

## 제11파트: 진행자 — '공명'을 대중적인 언어로 설명한다면?

**진행자:** 청취자들을 위해 '공명한다'는 것을 일상적인 표현으로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 무슨 뜻인가요? 어떤 에너지나 파동을 방출한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평이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

## 제12파트: 엔지니어 — 온 우주의 에너지 도화지와 라디오 수신기의 원리

**엔지니어(데니스):** 사실 온 우주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우주의 어느 지점에나 거대한 에너지원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항성(별)들입니다. 우리의 경우, 태양이 모든 생명체의 주요 에너지원입니다. 생명의 탄생과 발달은 모두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를 이용합니다. 태양 에너지는 극도로 넓은 범위를 가진 다중 스펙트럼(multi-spectral)입니다.

우리는 그중에서 대략 400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가시광선 영역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네, 우리는 그것만 봅니다. 나머지는 인간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주파, 고주파, 초고주파 대역 전체에서 방사되고 있습니다. 자외선 너머에는 엑스레이(X-ray) 방사가 있죠. 인류의 보편적 이해 속에서는 이 범위의 끝에 도달하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죠.

하지만 실제로는 에너지가 완전히 붕괴되어 물질 자체를 창조해 낼 때까지 훨씬 더 멀리, 더 멀리 뻗어 나갑니다. 태양은 물질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가 '도화지'처럼 사용하는 에너지를 창조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가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세포가 공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에너지를 없애 버리면, 수신기가 방송 신호를 잡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세포도 공명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

## 제13파트: 진행자 — 세포가 지닌 고유한 파동과 외부 간섭

**진행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공명한다는 것은 세포의 진동이 어떤 태양 복사선의 진동과 일치한다는 의미인가요? 이를 쉽게 설명하자면... '공명'이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세포가 마치 물 위의 파문처럼 자신만의 독특한 방출원 역할을 하여 고유한 방사(radiation)를 지니고 있고, 태양이나 지구 자기장, 실내 배선 등에서 오는 외부 방사가 존재하는데, 이 기기가 생성하는 방사나 세포의 방사가 일치할 때 이를 공명이라고 부르는 것인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 이해한 것입니까?

---

## 제14파트: 엔지니어 — 고장 난 라디오 노브와 장기 세포들의 확장 통신

**엔지니어(데니스):** 자연계에서 정지해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모든 것이 움직입니다. 그 어떤 원자핵도 가만히 멈춰 있지 않고 전자가 끊임없이 궤도를 돕니다. 분자 자체, 물질 자체도 언제나 움직이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안정한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어디에나 어떤 형태로든 진동 주파수가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방사나 발생이 아닌 오직 '공명'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면, 튜닝 노브가 고장 나서 특정 주파수 하나만 수신할 수 있는 라디오 수신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 수신기에는 고유한 회로인 국부 발진기(heterodyne)가 있습니다. 이 국부 발진기는 특정 주파수의 진동에 맞추어 조율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을 때 이 진동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하지만 국부 발진기 진동의 고조파(harmonic)나 기본 주파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진동을 가진 에너지가 유입되는 순간, 마치 그네를 탈 때처럼 매 움직임을 증폭시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는 파동에 순응하면서 자체 진동의 진폭을 키우고, 돌연 어떤 정점(spike)을 보게 됩니다. 외부 송신기(예를 들어 라디오 방송)에서 오는 주파수와 공명한 덕분에 자신이 조율되어 있던 주파수를 완벽히 잡아낸 것입니다. 그렇게 공명하기 시작하여 정보를 수신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살아있는 세포들도 분명히 이러한 방식으로 서로 소통합니다. 즉, 세포들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주파수(기억하시죠, 고장 난 라디오 노브)를 제공해 주면 세포들은 각자의 특정 주파수 상태에서 일합니다. 예를 들어 간 세포, 폐 세포, 뇌 세포 등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주파수를 가지고 있죠. 모든 세포는 세포 간 통신을 위한 고유한 주파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주파수를 정확히 겨냥하여 해당 범위에 생명을 주는 에너지를 공급하면, 세포는 그 에너지를 찾아내어 통신의 '목소리'를 크게 증폭시킵니다. 에너지 공급이 없을 때 통신이 이토록 미약했다면, 에너지 공급이 있을 때는 이렇게 강력해집니다. 우리가 기기를 끄고 손을 떼더라도 세포들은 한동안 계속해서 큰 목소리로 소통하며 서로의 신호를 명확히 듣습니다. 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 올바르게 알리기 때문에 재생(regeneration)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일어나며, 이를 통해 유기체 전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 제15파트: 진행자 — 유익한 대안 수단들의 통합적 적용

**진행자:** 유기체의 회복은 모든 유익한 수단들의 종합적인 적용을 통해 이루어지는 법이죠 ... 저는 언제나 몸에 이롭고 긍정적인 것이라면 그 어떤 것이든 전부 통합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기기와 관련해서라면, 이 '에너지 조력자'가 도움이 될까요?

---

## 제16파트: 엔지니어 — 강력한 생체 보조 장치와 생활 습관의 중요성

**엔지니어(데니스):** 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이미 입증되었으며, 수많은 피드백이 이 기기가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 조력자라는 점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전과 다름없이 몸을 끊임없이 혹사하고,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며, 부적절하게 식사하고, 몸을 독소로 오염시키는 등의 행동을 반복한다면 결국 언제나 원래대로 돌아가는 '되보(rollback)'라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즉, 기기를 통해 몸을 도와주었더라도 건강하지 못한 생활 방식 때문에 다시 원점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현대인들이 온전히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모든 좋은 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동시에 생활 방식을 반드시 바꾸어야 합니다. 이 기기는 어디까지나 에너지 조력자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사용할 수 있죠...

---

## 제17파트: 진행자 — 암세포나 바이러스는 왜 공명 충전되지 않는가?

**진행자:** 여기서 곧바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이 기기가 건강한 세포의 공명을 도와 그들의 에너지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활성화한다는 점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세포들도 존재하잖아요. 조르주 라코프스키는 유럽과 미국의 여러 병원 클리닉에서 이를 종양(암) 및 기타 질병의 치료법으로 적용했습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 혹은 암세포 같이 원칙적으로 몸에 필요 없는 것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공명이 좋은 의미에서 건강한 세포를 자극하고 충전할 뿐만 아니라 그 유해한 세포들도 자극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암, 즉 악성 종양이 물러가거나 사라지고,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도 박멸되는 것인가요? 그들도 엄연히 자신만의 세포를 가지고 있을 텐데, 왜 그들은 활성화되지 않는 것입니까?

---

## 제18파트: 엔지니어 — 깨끗한 도화지 이론과 면역계 고유의 '아군/적군' 인식 시스템

**엔지니어(데니스):** 그것이 바로 건강한 '시스템(조직 구조)'의 메커니즘입니다. 본연의 건강한 유기체의 모습을 깨끗한 종이 한 장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촘촘하고 잘 조율되어 있으며 조화롭게 작동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먼지와 오물이 묻어 얼룩진 것이죠. 우리의 에너지 조력은 바로 그 깨끗한 종이를 씻어내기 위해 존재합니다. 실제 작동 방식은 이 둘을 완벽하게 분리해 내는 것입니다.

즉, 유기체가 조화롭고 완벽하게 작동한다면 사실상 그 어떤 질병도 스스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암 발병 사례가 거의 없는 고산 지대를 예로 들어보죠. 물론 그곳은 방사선도 상당히 강력하고 유기체 자체도 더 건강하며 공기도 희박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결합되어 인간이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따라서 더욱 건강해진 유기체는 스스로 대처할 능력이 있으며, 당신은 그저 유기체가 그러한 상태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됩니다. 유기체가 알아서 처리하고 질병을 청소할 것입니다.

인간의 면역계는 너무나 강력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바이러스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유해한 것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태어날 때부터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즉, 온전히 건강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이 복잡한 시스템, 즉 '깨끗한 도화지'가 충분히 견고하기 때문에 어떤 질병도 침투할 수 없습니다. 오물을 털어내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면역력이 극도로 약화된 자가면역 질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체 스스로가 질병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그것은 이미 상태가 매우 나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최초의 기점으로 다시 재건해야 합니다.

---

## 제19파트: 진행자 —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진행자:** 본질적으로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는 만병통치약(panacea)까지는 아닐지라도...

---

## 제20파트: 엔지니어 — 흉선이 활발하던 어린 시절의 면역 복원

**엔지니어(데니스):** 세상에 만병통치약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지 매우 강력한 에너지 조력자일 뿐입니다. 당신이 이 도구와 몇 가지 다른 수단들을 결합하여 스스로의 면역계를 복원해 내면, 면역계는 악성 종양을 포함하여 자신을 공격하는 거의 모든 질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암은 본질적으로 세포의 돌연변이이며, 비정상적인 유기체의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유기체는 반드시 건강한 세포와 건강하지 못한 세포를 식별해 내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작동 메커니즘이죠. 만약 유기체가 이를 식별해 내지 못하고 "다 괜찮으니 계속 자라나게 뒤라"라고 방치한다면, 그것은 건강하지 못한 유기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따라서 당신은 유기체가 조화롭게 작동하도록 도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면역계가 대자연이 의도한 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면역계는 정말로 스스로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면역계가 올바르게 작동한다면 그 어떤 알레르기도 겪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돌연변이도 존재해서는 안 되며, 유기체는 그 모든 것을 거부하고 배척할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유기체에는 '아군과 적군(self/non-self)'을 구별하는 정교한 인식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즉, 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적군(чужой)'입니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유기체는 이를 철저히 배척합니다.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 온갖 질병의 다발적인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린 시절 흉선(thymus)이 활발하게 작동하여 강력한 면역계를 가졌던 그 축복받은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노력한다면, 그의 몸에서 질병들이 정말로 우수수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신체의 면역계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면역계가 제대로 가동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즉, 본질적으로 유기체를...

---

## 제21파트: 진행자 — 치료 세션 기간 중 약물 복용 병행 여부

**진행자:** 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질병을 앓는 와중에 예를 들어 약을 복용하고 있다면 ... 항생제처럼 간단한 의약품을 예로 들어보죠 ... 이 기기의 치료 과정이나 세션을 진행하는 경우, 복용 중인 약을 중단해야 합니까, 아니면 중단하지 않아도 됩니까?

---

## 제22파트: 엔지니어 — 세 과학자의 유산: 테슬라, 다르송발, 라코프스키

**엔지니어(데니스):** 질병에 대처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전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약물 간의 상호 호환성 문제는 제기되어야 하겠지만, 이 기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는 완전히 다른 방향, 전혀 다른 차원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에너지 조력자입니다. 당신이 생화학적(biochemically)으로 스스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더라도, 생체 에너지적 성분과는 그 어떤 충돌도 발생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솔루션은 세 명의 위대한 과학자의 연구 덕분에 탄생했습니다. 첫째로 니콜라 테슬라는 고전압이 인체에 미치는 유익한 영향력을 최초로 공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조르주 라코프스키의 스승이었던 아르센 다르송발이 이 주제를 매우 밀착하여 깊이 연구하고 전수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우리는 유기체가 생체 에너지적으로 에너지를 올바르게 건강하게 수용하도록 돕는 해법을 얻게 된 것입니다.

즉, 유기체에 유해한 방사를 쬐거나 자기적 진동으로 충격을 주려는 시도와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대자연의 원리와 일치합니다. 따라서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부작용이나 금기 사항이 거의 없습니다 ... 유일하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심장 박동기(pacemaker)일 수 있습니다. 기기가 전기로 작동하므로 물리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 제23파트: 진행자 — 정전식 터치스크린의 유도 전압 현상

**진행자:** 박동기가 본질적으로 오작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인가요? 예를 들어 세션 중에 스마트폰이 스스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마음대로 앱을 다운로드하는 등의 오작동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말이죠 ... 제 경험상 이것은 터치스크린 때문이 맞나요? 터치스크린의 정전식 셀에 유도된 전압에 반응하여 실제로 손가락으로 누르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

### 제24파트: 엔지니어 — 세션 중 전자기기 격리 지침

**엔지니어(데니스):** 우리는 세션 진행 중에 모든 전자기기를 멀리 치워둡니다. 만약 몸에 지닌 가느다란 목걸이나 반지 같은 장신구가 있다면... 그런 것들까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

### 제25파트: 진행자 — 1940년대 미국의 역사적 오리지널 특허

**진행자:** 제가 올바르게 이해한 것이 맞다면, 이 기기는 미국의 오리지널 특허 항목에 완전히 부합하게 조립된 것인가요?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조르주 라코프스키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그곳에서 정식 특허를 등록했으니까요. 당신은 이 특허를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하셨나요, 아니면 어딘가에서 원본을 찾아 번역하셨나요? 어떤 방식을 취하셨습니까? 즉, 기기 제작이 이 특허 및 저자의 본래 아이디어와 정확히 일치하나요?

---

## 제26파트: 엔지니어 — 인터넷 루머를 배제하고 친필 수고 분석

**엔지니어(데니스):** 해당 특허는 당연히 스파크 갭 방전기를 기반으로 작동하던 구형 버전의 기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소음을 냈고 효율성이 상당히 낮았으며, 두 번째 안테나는 대략 25%의 용량으로만 작동했습니다. 모든 것을 수작업으로 하던 시절이었죠 ... 20세기 초에 트랜지스터 대신 스파크 갭을 사용했다고 상상해보십시오. 당시에는 진동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지진이 발생하는 커패시턴스(전기용량) 회로를 만들고 이를 충전해야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요.

그리고 두꺼운 접촉 단자(예를 들어 가이던트나 너트)를 5센티미터 간격으로 배치하면 그 사이로 불꽃이 튀어 올랐습니다. 커패시턴스가 다시 충전되면 새로운 충전이 일어나고, 곧바로 다시 방전이 일어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방전이 초당 수천 번씩 발생했습니다. 소리는 전기충격기와 매우 비슷했죠. 맞습니다, 무시무시한 소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20세기 초에 구할 수 있었던 구식 구형 버전을 그대로 복제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었죠. 과제는 저자의 본래 구상(아이디어)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인터넷상의 자료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의 실제 친필 수고(manuscripts)를 직접 채택했습니다.

인터넷에 널려 있는 가이드나 소문들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추측과 왜곡이 반복되는 기술적 막다른 골목이라는 뼈아픈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추측을 내놓으면 두 번째 사람이 맹목적으로 추측을 보태고,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나 반드시 이 방식이어야만 한다고 고집하며 결길로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아니요, 저는 원본 원판 문서, 특히 조르주 라코프스키의 친필 노트를 직접 분석했습니다. 그는 직접 글을 쓰고 도면을 그렸습니다. 예를 들어 안테나 원리에 관해서는 피보나치 수열 같은 형태가 결코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He는 완전히 일직선의 선형(linear)으로 그렸습니다. 그리하여 현재의 안테나들은 정확히 도면 그대로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고, 모든 치수가 철저히 준수되어 원본에 최대한 가깝게 도출되었습니다. 현대적인 소재들이 사용되었죠 ... 그 당시에는 그가 어떤 구상을...

---

## 제27파트: 진행자 — 한 개의 코일과 두 개의 코일의 역사적 변천

**진행자:** 그런데 왜 현재 이 기기에는 코일이 단 한 개만 장착되어 있나요? 조르주 라코프스키의 과거 역사적 사진들을 보면 각 안테나마다 두 개의 코일이 연결되어 있던데요.

---

## 제28파트: 엔지니어 — 효율이 75% 급상승한 '거울식 대칭 공명'

**엔지니어(데니스):** 그것은 기기의 가장 초기 버전이었습니다. 나중에 사람들은 그러한 구조적 설계 때문에 두 번째 안테나에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독립적인 발생 장치가 결여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파수 이탈(shift) 현상이 일어났죠 ... 아시다시피 고주파는 거리에 극도로 민감합니다.

본질적으로 파장이 12센티미터인 경우, 도선이 단지 6센티미터만 더 길어져도 비동기화(asynchrony) 현상이 유발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고주파 영역에서는 이 아주 미세한 물리적 거리가 매우 중요해집니다. 따라서 보조 코일(2차 코일)을 가진 안테나를 두 번째 안테나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안테나의 효율성이 저조했던 핵심 원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후 점진적으로 개량 제작되어 12형, 13형 등의 연속적인 변형 버전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즉, 기기는 계속해서 완벽을 향해 고도화 및 정밀화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논하고 있는 이 특정 기기는 이미 최종적으로 가장 진화하고 완벽해진 최신 버전입니다. 이 기기의 작동 메커니즘은 중심축으로부터 양방향으로 향해 거울식 대칭(mirror symmetry)을 이루며 파동을 발생시키는 데 있습니다. 하나의 단일화된 통합 시스템이 이를 확고하게 고정하고 안정화하므로 방사되는 파동이 완벽하게 동기화되며 동등한 출력(power)을 유지합니다. 즉, 실제 퍼포먼스 면에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강력해졌습니다.

결국 핵심 의문은 '현재의 기기가 어째서 100년 전의 오리지널 기기보다 효율성이 무려 75%나 급상승했는가?'입니다. 2차 안테나의 작동 효율성이 직접적으로 75%나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녀가 완전히 힘차게 맞물려 흔들리는 듯한 완벽하고 가득 찬 '그네식 진동 공명(swing)'을 얻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주기상에 약간의 구조적 결함이 있어서... 그녀가 100%의 추진력을 받아 날아갔다가 되돌아올 때는 겨우 25%의 힘만 수용하여 경미한 불균형과 왜곡을 초래했었죠. 그러나 현재는 두 안테나가 완전히 동등한 위력으로 완벽히 동기화되어 유기적으로 파동을 '밀어주기' 때문에 종합적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원하신다면 언제든 초기 버전으로 되돌아가 제작할 수도 있지만, 이 최신 기기는 전적으로 가장 완성도 높은 기술적 바탕 위에 제작된 것입니다.

---

## 제29파트: 진행자 — 안테나 간의 최적 물리적 거리

**진행자:** 우리가 배치하는 안테나 사이의 거리가 물리적으로 중요한가요? 세션 진행 중에 두 안테나의 간격을 더 멀리 떨어뜨리거나 더 가깝게 좁힘에 따라 치료 결과나 유효성이 달라지게 됩니까?

---

## 제30파트: 엔지니어 — 1미터에서 1.5미터 사이의 황금 영역

**엔지니어(데니스):** 엄격하게 규정된 물리적 매개변수가 존재합니다. 안테나 간의 배치는 반드시 1미터에서 1.5미터 사이의 황금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이 범위를 절대로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매개변수들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사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테나들이 서로의 존재를 '감지'하기 때문입니다. 기기 자체는

이러한 공간 배치 하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적의 평형점(밸런스 포인트)을 찾아 자동으로 공명 상태를 조율합니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용자들이 무선 전파와 혼동하지 않도록 안테나가 아니라 방출원(emitters)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일반 무선 라디오 통신이 아닙니다. 이 방출원들 사이에 반드시 특정 물리적 거리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네, 안내 설명서에 명시된 그대로 안테나를 배치해 두기만 하면 되며, 본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요구되는 번거로운 조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하죠. 세션이 가동 중일 때는 절대로 방출원들을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

### 제31파트: 진행자 — 아이들이 접근할 때의 전기적 안전지표

**진행자:** 안전에 관한 질문입니다. 만약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으로 어린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전기적인 안전 측면에 대해서도 우려가 되는데... 만약 누군가 두 안테나를 동시에 붙잡거나 코일을 움켜쥐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에 치명적인 위협이 되거나 감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나요?

---

### 제32파트: 엔지니어 — 스트리머 집중 방전과 국소 화상 보호막

**엔지니어(데니스):** 우선, 이 기기는 장난을 치거나 가볍게 여겨서는 결코 안 되는 물건입니다. 본질적으로 사적인 목적으로 개인 소장품 목록 내에서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 하에 능동적으로 사용하도록 복원된 정밀 기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기심으로 장난을 치거나 오용하려는 성향의 사람들을 어린아이든 누구든 불문하고 기기 근처에 절대 접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철저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정말 우연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라면, 손을 안테나에 지나치게 가까이 대는 순간 즉시 보호 메커니즘이 트리거됩니다. 당신 앞에 놓인 이 기기는 전력망에서 소모되는 전류의 급격한 서지나 증가에 실시간으로 즉각 반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류의 누출이 발생하는 즉시—누출 대상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단지 사람이 너무 가까이 접근하기만 해도—단 몇 초 내에... 음, 명백하게 그 결과로 화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즉, 전하가 분산 방전되지 못하고 단 하나의 가닥(streamer)으로 집중되는 지점에 화상이 발생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불꽃이 피부 표면 전체로 골고루 분산되지 않고 신체 표면의 어느 한 지점으로 고스란히 집중되어 관통하려 할 때—음, 국소적인 피부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기를 임의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굳이 그런 위협을 무릅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

### 제33파트: 진행자 — 220V 감전사 vs 50,000V 표피 화상의 패러독스

**진행자:** 바로 그 점이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용 콘센트에 흐르는 전기 전압이 220볼트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거기에 손가락을 집어넣으면 전류로 인해

정말 인명을 앗아갈 수 있죠. 아주 어린아이들조차 그것이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이 기기에는 무려 10,000볼트... 아니, 여기 흐르는 전압이 50,000볼트인가요? 50,000볼트라니!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수치입니다. 콘센트의 220볼트는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반면, 여기의 50,000볼트는 그저 손가락에 가벼운 화상 자국만 남기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대체 어떻게 설명되는 것입니까?

---

### 제34파트: 엔지니어 — 정전기 과학과 고전압을 밀어내는 '표피 효과(Skin Effect)'

**엔지니어(데니스):** 실생활의 간단한 예시들을 살펴보면 곧바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계절에 우리 모두가 겪는 일인데, 스웨터를 벗을 때 지지직하는 정전기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바로 순간적인 방전 현상입니다. 당신은 스웨터를 탈의하는 찰나의 순간에 이미 약 20,000볼트에 달하는 고전압을 스스로 생성해 낸 것입니다. 플라스틱 빗으로 머리를 빗을 때도 5,000볼트, 10,000볼트에 육박하는 정전기가 발생하죠.

이것들은 신체에 전적으로 완전히 무해한 전압입니다. 전류의 세기(strength)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고전압은 아무런 해를 끼치지 못하니까요. 따라서 이 기기 내부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소수점 아래 0.00몇 단위에 불과할 정도로 극도로 미미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사실 대자연 전반이 이러한 기본 패러다임으로 정교하게 구축되어 있으며, 지난 45억 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동안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바로 이러한 전장 강도(intensity) 환경 속에서 생존하고 진화해 왔습니다. 즉, 전류의 세기가 결여된 순수한 전압 형태는 생명체에게 매우 유익하고 친화적입니다. 대자연에 의해 지극히 자연스럽게 수용되며, 세포 및 유기체 전반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평온하게 받아들여집니다.

우리는 인지하지 못할 뿐, 매 순간 엄청난 고전압 환경 속에 노출되어 살아갑니다. 거대한 구름떼가 대기 중에서 움직일 때마다 토양 내부의 화학적 작용으로 전리(ionization)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유발되는 것처럼 말이죠. 고에너지 전자들이 공간 도처에서 생성되어 자발적으로 튀어나오며, 이들은 흔히 수백만 볼트에 달하는 거대한 전위를 품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과 살아있는 대자연은 언제나 이러한 고전압 현상과 빈번하고 밀접한 상호작용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공포를 느껴야 하는 치명적인 요인은 전압이 아니라 오직 전류 그 자체, 즉 전류의 세기입니다. 전류의 세기가 차단된 고전압은 그저 신기하고 흥미로운 자연 현상(유희나 오락과 유사한 것)일 뿐입니다. 지극히 무해하며, 원한다면 얼마든지 이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습니다. 과거 니콜라 테슬라가 양손바닥 위에 무시무시한 번개 불꽃을 직접 올려두고 자유자재로 연출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냉정히 말해 그 전호(electric arc)들에는 거시적인 전력이나 위력(power)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더욱 결정적인 물리적 특성은, 고전압이 도체를 타고 전송되거나 전도될 때 나타나는 매우 독특한 현상인 '표피 효과(skin effect)'입니다. 즉, 고전압은 도체의 중심을 뚫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물체의 표면만을 타고 흐르는 성질을 가집니다. 가정용 220볼트 같은 저전압은 유기체에게 정말로 치명적인데, 전압이 염분을 함유한 혈액을 타고 인체 내부의 모든 장기와 심장까지 다이렉트로 관통해 흐르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누군가 불행하게 감전된다면 말이죠.

반면 고전압은 신체의 피부 표면만을 스치듯 타고 흘러가 버립니다. 심지어 절연체(유전체) 위나 물체의 표면 위로도 고스란히 전송될 수 있죠. 이 시점에서는 도선의 단면적이 아니라 공간적인 기하학적 구조(geometry)가 결정적인 역할을 행사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고전압은 도체의 내부 중심부를 결코 통과하지 않으며 표면을 따라서만 흐릅니다. 중심 밖으로 강하게 밀려나는 것인데, 이들은 고에너지 전자들이며 쿨롱의 법칙에 따른 척력(Coulomb repulsion)으로 인해 전자들 스스로가 물질 내부로부터 자발적으로 멀어지며 외곽으로 확산되려는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

### 제35파트: 진행자 — 형광등隔空 점등의 원리와 백열등의 반응

**진행자:** 전류의 세기가 정말로 그렇게 낮다면, 형광등 기구를 안테나 사이나 코일 근처에 가져가기만 해도 마치 기기의 작동 표시등처럼隔空으로 환하게 밝혀지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요? 무엇에 의해 불이 켜지는 것입니까? 그리고 혹시 백열등(필라멘트 램프)도 여기 가져다 대면 불빛이 들어오나요, 아니면 오직 형광등만 빛을 내나요?

---

### 제36파트: 엔지니어 — 진공관의 시대에서 불활성 가스 소비재 램프로의 전환

**엔지니어(데니스):** 음, 백열등의 텅스텐 필라멘트 역시 국소적으로 아주 약간은 미세하게 빛을 내겠지만 그 정도는 극히 미미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텅스텐 필라멘트가 열을 받아 빛을 방출하고 밝아지기 위해서는 가시적인 전류, 즉 전압이 아니라 전류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백열등의 전구 내부에서 흐르는 가닥 형태의 불꽃인 '스트리머(streamer)' 현상을 즉시 목격하시게 될 것입니다. 내부에 금속 도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유도 방전이 일어나 공기 중으로, 혹은 주변 환경으로 방전되는 스트리머가 전구 내부에서조차 발생하는 것이죠.

그리고 현재의 전구 내부에는 불활성 가스(inert gas)가 충전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의 전구들은 수백 년 동안 지속해서 작동하도록 설계되었고 실제로 초기 전구 중 일부는 지금까지도 빛을 내고 있는 초창기 원본 전구들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후 상업적 시스템의 핵심 목표는 수명이 유한한 '소모성' 램프를 제조하는 쪽으로 선회했기 때문에, 요즘 제조사들은 고진공 전구를 만들지 않고 내부에 불활성 가스를 채워 넣습니다. 그러한 가스 환경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스트리머, 즉 외부 환경을 향한 방전 현상이 자발적으로 유도됩니다.

이것이 왜 발생하는가 하면, 주로 전기장 강도가 급격하게 변화할 때 주변 환경으로부터 일종의 역유도(inverse induction) 반응이 유발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스튜디오 공간 전체를 고순도의 불활성 가스로 가득 채운 뒤 기기를 켜게 된다면, 과거

니콜라 테슬라가 직접 연출해 보였던 기이한 광경처럼 허공을 유영하며 달리는 수많은 방전 줄기(스트리머)들을 직접 육안으로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일반 공기는 이러한 현상을 촉진하는 능력이 훨씬 떨어지며, 전도성이 불량하고 우수한 절연 특성을 지닌 유전체(dielectric)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공기 환경에 맞추어 이 기기는 고도로 정밀한 계산과 조율을 거쳤으며, 공기 중으로 미세한 전기량이 누출되거나 스트리머 현상이 일어나는 일, 지지직거리는 누전 소음이나 불꽃이 튀는 현상을 완벽하게 차단해 두었습니다. 모든 하우스링 케이스, 3D 프린터로 정밀 맞춤 인쇄된 부품,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 전선의 안전 단면적, 심지어 부품 간의 이격 거리까지 전부 세밀하게 계산되어 스트리머 누출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기기는 완벽하게 침묵을 유지하며 조용히 작동합니다. 당신이 균형을 깨뜨리기 위해 손을 뻗거나 테스트용 전구를 기기 근처로 강제로 근접시키지 않는 한 말이죠. 정상적인 가동 상태에서는 육안으로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기가 작동함에 따라 신체가 즉각적으로 느끼는 매우 편안하고 유익한 생체적 효과를 명확히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

### 제37파트: 진행자 — 라코프스키 학설 체계 안의 세포 전기 기원

**진행자:** 그렇다면 인체 내부의 살아있는 세포들 역시 본질적으로 마이크로볼트( $\mu\text{V}$ ) 단위의 전압을 스스로 방출하는 일종의 미형 축전지(accumulator)라고 표현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정확한가요? 아니면 미형 진동 회로(oscillatory circuit)인가요? 라코프스키가 저술한 이론적 맥락 안에서 축전지와 진동 회로는 같은 개념으로 보아야 합니까? 즉, 세포가 고유한 방사(radiation)를 생성하는 底层 원천은 무엇인가요? 라코프스키의 학설 체계 안에서 도대체 살아있는 세포 내부의 미세 전류와 전기는 어디로부터 기원하는 것입니까?

---

### 제38파트: 엔지니어 — 광범위한 화이트 노이즈와 세포 통신의 표준화

**엔지니어(데니스):** 아니요, 우리는 물론 생물 발광(bio-luminescence)이나 전기뱀장어처럼 생명체 스스로 전기를 직접 생성해 내는 다른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대해 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본 주제와는 다소 궤를 달리하는 영역입니다.

조르주 라코프스키는 살아있는 다양한 유기체의 세포들이 서로 통신할 때 사용하는 특정 주파수 영역대 전체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화이트 노이즈(white noise)'를 발생시키는 물리적 기기를 설계하는 데 전적으로 집중했습니다. 특히 그의 연구 주 타깃은 바로 인간의 세포 가동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세포들은 서로 통신합니다... 무선 라디오 주파수나 특정 전기 주파수 같은 형태로 말이죠...

---

### 제39파트: 진행자 — 뉴런 사이의 미세 전류 전도

**진행자:** 마치 신경계의 뉴런들처럼 말이죠. 그들 사이에 전기가 흐르는 것... 맞습니다. 학교 과학 시간에 배우는 지식처럼, 살아있는 세포의 뉴런들 사이에는 미세한 전류가 전도되며 소통하니까요.

---

## 제40파트: 엔지니어 — 전류의 거북이 속도 vs 전압의 광속 커뮤니케이션

**엔지니어(데니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만약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강의실의 지루하고 정형화된 기존 전자기학 교과서에서 잠시 벗어나 보면, 실제 전류의 물리적 이동 속도는 전압의 전파 속도에 비해 상상 이상으로 엄청나게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전류의 세기를 대변하는 자유 전자들의 실질적인 이동 속도는 도선 내부에서 정말 거북이걸음과 같습니다. 글자 그대로 초당 고작 1에서 2센티미터 전진하는 수준에 불과하죠. 믿기 힘들 정도로 느리게 움직입니다.

반면 **전압**을 매개로 삼아 상호작용 신호를 전달하는 속도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 당신이 아주 긴 도선의 한쪽 끝에 전압을 인가하면, 무려 3,000킬로미터나 멀리 떨어진 반대쪽 종단에서도 단 1초도 안 되는 찰나의 순간에 즉각적인 감응 반응이 유도됩니다. 그것이 바로 전압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보시다시피 극도의 초고속이며, 우주 물리학적 한계 속도인 빛의 속도로 공간을 전파해 나갑니다.

따라서 여기에 본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전류의 세기를 강제로 인가하지 않고 오직 순수한 전압 조율 메커니즘을 채택한다면, 인류가 현대 과학 기술 안에서 규명해 낸 통신 수단 중 가장 신속한 '빛의 속도 수준의 초고속 통신'을 완벽하게 구현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인류의 기술로는 이보다 더 빠른 정보 전달 매체를 발견하거나 제어해 내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대자연 속의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는 정확하게 바로 이 메커니즘—즉, 미세한 전압 신호의 정교한 변화를 기반으로 내부 소통과 정보 교환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설마 세포들 사이에 소통을 하기 위해 몸 안에 전화선을 깔아두듯 수많은 물리적 도선들을 배치해 두었겠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절대 세포들은 거시적인 전류를 주고받지 않으며, 오직 우리 행성 도처에 항시 영원히 존재하고 충만해 있는 거대한 '배경 에너지 환경'에 의존하여 자발적으로 공명할 뿐입니다. 만약 특정 임상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면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 배경 에너지장을 증폭시켜 줄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인체 내부의 세포들은 전보다 훨씬 더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서로 소통하며 유기적인 정보 교환을 시작하게 됩니다.

---

## 제41파트: 진행자 — 스칼라 에너지의 물리학적 귀결

**진행자:** 그것이 우리가 대화 초반에 잠시 언급했던 이른바 '스칼라 에너지(scalar energy)'인가요? 전압이 실어 나르는 필드 에너지가 바로 스칼라 에너지인가요, 아니면 스칼라 에너지란 정확히 어떻게 정의할 수 있습니까?

---

## 제42파트: 엔지니어 — 정보적 성분을 함유한 다중 주파수 공간 전장

**엔지니어(데니스):** 그것은 본질적으로 철저한 '정보적 기반(informational basis)'을 갖춘 다중 주파수 공간 전장입니다. 하나의 장(field)입니다. 도선을 타고 흐르는 보편적인 전류나 전기가 절대 아니라, 태생적으로 이미 고유한 정보적 컴포넌트를 함유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필드입니다. 이 장은 수많은 주파수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 기기의 공식 명칭이 정의된 바와 같이 말이죠. 다양한 학술 문헌이나 자료들을 살펴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를 가리켜 '다중 주파수' 혹은 '다중 파동'이라고 명명하는 것을 자주 목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제43파트: 진행자 — 인터넷 기술 용어 오용과 '발전기 vs 발전기'

**진행자:** 덧붙여서 한 가지 흥미로운 세부 사항을 언급하자면, 출처나 자료마다 사용하는 용어들이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곳에서는 '발전기(Oscillator)'라고 기록하는 반면, 다른 곳에서는 '발전기 / 생성기(Generator)'라고 번역해 두기도 했습니다. 당장 인터넷에 '라코프스키 발전기' 혹은 '라코프스키 발전기'라고 검색해 보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원칙적인 차이점이 존재하는 것인가요? 왜 어떤 곳에서는 발전기라 부르고, 어떤 곳에서는 발전기라 칭하며, 심지어 다중 파동이나 다중 주파수라는 명칭까지 혼용되는 것입니까?

---

## 제44파트: 엔지니어 — 주관적 추측은 기술적 늪, 오직 '다중파동 발전기'가 진실

**엔지니어(데니스):** 저는 그러한 주관적인 허황된 상상이나 근거 없는 추측들을 가리켜 '늪(трясина)'이라고 부릅니다. 즉, 누구든 한순간 방심하면... 소문과 추측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 그 안에서 완전히 익사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헛된 추측들은 왜곡을 거듭하며 사람들의 인지 속에 공고해지고, 급기야 뿌리를 내려... 결국에는 소문이 원본 출처를 완전히 대체해 버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저자 본인의 역사적 수고나 조르주 라코프스키가 당시 제출했던 정식 특허 문서를 직접 들여다보면—그곳에는 외래어, 즉 라틴 문자로 아주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Oscillateur(발전기)라고 말이죠. 'generator(발전기)' 같은 어휘는 역사상 단 한 번도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부 나중에 임의로 글을 쓰던 사람들이 임의로 가공하고 윤색해 버린 어설픈 각색에 불과합니다...

오류 가득한 소문의 늪에 장기간 함몰되어 있던 자들은 자신이 가장 먼저 접했던 잘못된 정보를 맹신한 나머지, 그것이 자신들의 세계관을 지탱하는 사상적 초석이자 근본적인 도그마가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불려야 하며 절대 변경할 수 없다"고 고집스럽게 소리 높입니다. 그러나 그 인지적 바벨탑의 기반은 전적으로 허구와 추측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온전한 진실을 발견하고자 한다면—반드시 가장 원초적인 오리지널 일차 사료(первоисточник)로 귀환해야만 합니다. 인터넷상에 범람하는 온갖 해석들과

오용들을 완벽하게 무시해 버리십시오. 오직 가장 권위 있는 원본 원판 문서만을 보십시오. 원본 문헌에는 명명백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중 파동 혹은 다중 주파수 발전기(물론 이 두 용어는 완벽하게 동일한 개체를 묘사합니다)입니다. 따라서 유일하게 정당한 오리지널 번역 명칭은 바로 다중파동 발전기(Multi-Wave Oscillator)입니다. 이 점에는 그 어떤 단호한 의문도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

## 제45파트: 진행자 — 물리학적 차원의 구별: 파동 vs 주파수

**진행자:** 그렇다면 물리학적 차원에서 '파동(Wave)'과 '주파수(Frequency)'는 서로 다른 개념인가요?

---

## 제46파트: 엔지니어 — 표준 정현파 곡선의 정교한 명명

**엔지니어(데니스):**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자면, 이른바 '주파수'는 전위가 양극(+)과 음극(-) 사이를 교차 변환하는 비율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이 파형은 완전히 다른 형태를 띠 수 있습니다: 톱니 모양, 정사각형 방형파, 혹은 단속적이고 간헐적인 형태 등 어떻게든 가공할 수 있죠.

반면 '파동'은 파동 그 자체입니다. 수학 및 물리학적으로는 우리가 일관되게 이해하는 매끄럽고 표준적인 정현파(sine wave) 곡선 형태로 나타납니다. 따라서 현재의 설계 구조하에서 조르주 라코프스키가 자신의 기기에 '다중 파동(Multi-Wave)'이라는 정교한 왕관 명칭을 명명한 것은 지극히 공정하고 올바르며 고도로 정밀한 선택이었습니다 — 이것은 본질적으로 매우 완벽한 발전기입니다.

---

## 제47파트: 진행자 — 개발자 본인의 신체 임상 데이터 피드백

**진행자:** 데니스 씨, 이제 가장 흥미진진한 핵심 테마를 들려주십시오. 이 기기가 도대체 어떠한 물리적 메커니즘을 기반으로 인체에 작용하는 것인가요? 구체적인 작동 원리와 이를 통해 성취할 수 있는 실제 임상적 효과는 어떠한가요? 그리고 혹시 개인적인 질문입니다만, 개발자님 본인도 평소에 이 기기를 직접 사용하며 세션을 정기적으로 체험하시나요? 본인의 직접적인 신체적 변화와 결과, 체감 효과는 무엇이었습니까?

---

## 제48파트: 엔지니어 — 회의론자의 대전환: 만성 천식의 완치와 모세혈관 순환 대개선

**엔지니어(데니스):** 아, 그 이야기는 초기 역사적 배경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군요 ... 당시 사실 주변 사람들이 저에게 이 유실된 기술을 철저히 복원해 달라고 정말 간곡하고 진지하게 애원하다시피 강권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집요하게 매달렸던 이유는, 인터넷상에 유포된 수많은 자의적 해석과 추측성 복원 가이드라인이 전적으로

기술적 막다른 골목(dead end)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인터넷 가이드를 맹신하고 조립하다 보니, 원본과는 완전히 궤를 달리하는 엉뚱한 물건들이 제조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게 반드시 역사적 원본 자료에 엄격히 입각하여, 오랫동안 실전되어 있던 이 핵심 하드웨어 테크놀로지를 완벽하게 재건해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결국 저는 고심 끝에 수락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고전압 엔지니어링 기술 분야에서 수년간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아왔으니깐요. 연구 개발과 초기 조립 공정을 진행할 당시, 저는 극도로 솔직하고 지극히 꼼꼼하게 작업에 임했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어떤 주관적인 종교적 신념이나 믿음 따위는 전혀 탑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임상적 유효성을 발휘할지 여부는 당시 저의 일차적인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최우선 당면 과제는 그저 기계를 고장 없이 완벽하게 도면대로 제작해 내는 것뿐이었죠. 당시 저는 완전히 완고한 회의론자(skeptic)였습니다. 이 기술의 기능적 유효성에 대해 극도로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죠. "주문을 받았으니 제품을 완벽하게 빌드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첫 번째 기술 프로토타입 장비를 최종 조립 및 튜닝하고 있던 개발 기간 도중에, 오랜 세월 저를 악랄하게 괴롭혀오던 만성적인 천식 증후군(asthmatic syndrome)이 아무런 전조 증상도 없이 홀연히 완전히 자취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과거에 아주 극심한 알레르기 질환을 앓고 있었고, 현대 의학적 병인학(etiology) 관점으로는 도무지 원인을 찾아낼 수 없는 난치성 증상이었는데 신체가 특정 환경에 처할 때마다 격렬한 기침 발작과 거부 반응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바로 그랬었죠.

그런데 그 완고했던 알레르기성 기침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뿌리째 완전히 뽑혀 나갔습니다. 그냥 흔적도 없이 증발해 버린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서서히 완화된 것이 아니라 한순간에 뚝 끊기듯 단절되어 사라졌고,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단 한 차례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글자 그대로 이것이 저와 이 신기한 기기의 첫 번째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기기의 종합적인 셋업과 출고 작업을 채 끝마치기도 전에 기계가 저를 만성 고질병으로부터 구원해 낸 셈입니다.

그리고 더욱 기이한 현상은, 이후 이 기기를 보급하면서 다양한 환자 군에게서 저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고질적인 악성 질병들이 연쇄적으로 씻은 듯이 사라지는 임상적 데이터가 확보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한 가지 공통된 사실은, 기기를 접한 거의 모든 사람의 신체 종합 상태가 육안으로 식별 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대전환을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이 현상을 지극히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통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병인학은 저마다 다르고 질병의 스펙트럼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환자 군의 실제 발병 메커니즘은 본질적으로 그들 자신의 지극히 유해한 생활 습관과 왜곡된 작용 속에서 매일 끊임없이 새로운 질병을 양산해 내는 구조적隱患을 지니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신이 이쪽에서 아무리 기계를 가동하여 세포를 치유하고 유해 요소를 억누른다 한들, 환자 본인의 식습관과 수면 패턴이 근본적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면 저쪽 공장에서 새로운 질병을 무한대로 계속 찍어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장기적인 고통을 겪는 환자들은 본질적으로 장내 미생물 생태계의 극심한 붕괴(dysbiosis)를 겪고 있어, 체내에 조건부 유해 병원균 군집이 비정상적으로 득세하여

영양분이 장벽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거나 신체 대사에 필수적인 구조적 영양소들의 정상적인 섭취를 원천적으로 방해받는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底层隐患 때문에 온몸의 마디마디와 관절 조직에 만성적인 극심한 시림과 통증이 빈번하게 촉발되는 것이죠. 이 예시는 작금의 세포 통신 오류를 설명하기에 가장 완벽한 모델입니다.

맞습니다, 그의 거대한 인체 유기체 전체가 잘못된 작동 로직을 실행하고 있기 때문에, 전신의 관절과 연골 조직들이 리페어에 필요한 기본적인 세포적 '건축 자재'를 전혀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난 국면 속에서 당신이 우리의 '에너지 조력자'를 가동한다면—기기가 건강한 세포들을 자극하여 활력을 불어넣고 전반적인 컨디션을 확실히 끌어올려 몸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당신이 독한 마음을 먹고 생활 습관의 물리적 근원을 뿌리째 뜯어고치지 않는 한, 기기가 그 근본적인 구조적 오류 자체를 완전히 청소해 줄 수는 없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단 몇 차례의 초기 세션만 진행하더라도 환자의 대뇌 중중 작동 상태가 즉각적으로 전면적인 재조정 에 돌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수면 및 꿈의 질이 격렬하게 변화하는 것을 지극히 선명하게 지각하게 됩니다. 꿈이 믿기 힘들 정도로 깊고 고요해져 야간 각성 없이 완벽한 숙면을 취하게 되거나, 혹은 평소와 달리 꿈의 색채가 극도로 찬란하고 선명하며 생생하게 전개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왜 이토록 즉각적인 기적 같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일까요?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장기간 최전선 추적 연구와 임상 관측을 전개해 온 수많은 정밀 과학계 동료들이 놀라운 물리적 현상을 집단으로 포착해 냈기 때문입니다—단 몇 번의 세션을 거치고 나면 환자의 전반적인 혈상(blood picture)이 적극적으로 대전환하여 적혈구의 마이크로 수준의 형태가 정상적으로 복원되고, 전신의 미세 모세혈관 순환 품질이 문자 그대로 폭발적인 대개선을 맞이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일단 혈액이 평소에 쉽게 울혈과 정체가 발생하던 말초의 미세한 모세혈관 구석구석까지 막힘없이 매끄럽게 흐르기 시작하면—즉, 당신의 전신 장기와 관절 조직들이 구조적 건축 자재 및 풍부한 산소 공급을 가장 애타게 갈구하는 최종 말단 세포 터미널에 이르기까지—거대한 유기체 전체가 즉시 초고효율의 良性 회전 모드로 진입하게 됩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대뇌 중추는 거의 100% 극도로 정밀한 모세혈관 순환에 의존하여 가동을 유지하는 장기입니다. 따라서 세션 이후 당신의 장기 기억력이 눈에 띄게 향상되며, 뇌의 인지적 사고와 분석적 논리 역량 역시 극도로 민감하게 고도화됩니다. 당신의 整人체 기능이 함께 발고되는데, 대뇌가 전신 기능의 대부분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지휘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인간의 생존을 직결 통제하는 저 지극히 중요한 연수(medulla oblongata) 부위 말이죠. 연수는 글자 그대로 심장의 박동 주기와 주파수, 폐의 자율적인 호흡 메커니즘을 직접적으로 움켜쥐고 전담하는 사활적 요해처입니다. 모든 고리가 전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당신 전신의 말초 환경이 최적화될 때... 재생(regeneration)—세포들이 건강한 상태에서 소통하는 '목소리의 전면적인 증폭'에 힘입어 인체의 자가 재생 및 복원 역량이 마침내 전격적으로 재가동됩니다. 즉, 당신의 신체 내부에서는 매 순간 눈에 보이지 않는 격렬한 전쟁이 발발하고 있으며, 방어선이 외부에서 유입된 악성 병원체(우리는 잠시 그들을 그렇게 부르도록 하죠)들의 무차별적인 맹공격에 노출되어 심대한 충격을 입을 때마다, 유기체는 자가 수복 과정을 전개해야만 합니다. 이 기기가 제공하는 견고한 생체 에너지적 보호막 아래서, 이러한 사활적인 자가 재생 프로세스는 전보다 훨씬 더

매끄럽고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그것은 전체 리페어 메커니즘이 더 깊고, 더 멀리 도달할 수 있도록 밀어주어 유기체로 하여금 더욱 완벽한 구조적 재건을 달성하게 만듭니다.

실제 효과 면에서 당신의 전반적인 면역계 활성화 지표는 수직 상승하며, 말초 혈류 공급 성능 및 신체 구석구석의 장기 세포에 핵심 영양소와 산소를 수송하는 역량 역시 배가됩니다—이는 체내의 생화학적 대사 및 반응 속도를 전면적으로 가속하는 트리거가 됩니다. 과거에는 기능 저하로 인해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며 막대한 시간을 소비해야만 겨우 완료할 수 있었던 복잡한 체내 수복 작업들이, 이제는 극히 짧은 시간 안에 깔끔하고 신속하게 조기 완수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수치와 임상 표현들은 진정으로 마일스톤에 필적하는 탁월한 성과입니다.

결론적으로 모든 디테일을 종합하여 통찰해 보면, 당신은 본질적으로 미시적인 생체 에너지 차원에서 육신에 비할 바 없는 강력한 무장을 안겨주는 차원 다른 보조 도구를 확보하게 된 셈입니다. 에너지 차원에서 기기는 유기체가 더욱 조화롭고 안정적인 가동 로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으로 조력합니다. 그리고 이 기기를 처음 접하고 초기 세션을 갖 마친 거의 모든 피실험자가 이튿날 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숙면 품질의 극적인 개선에 감탄하는 것 외에도, 예외 없이 모두가 신체의 핵심 지구력과 스테미나가 폭발적으로 증강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믿기 힘들다는 경이로운 어조로 제게 달려와 흥분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들은 "데니스 씨, 과거에는 도중에 입술을 깨물고 열 번은 멈춰 서서 쉬지 않으면 도무지 고향 집 뒤편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는데—오늘 놀랍게도 단 한 번의 숨 가쁨도 느끼지 못한 채 단숨에 정상까지 하이킹을 완료했습니다!"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질병의 고통을 털어내고 아무런 병증이 없는 온전한 건강체가 된다는 것은 이토록 상쾌한 일이며,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전면 회복하고 나면 유기체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상태를 본래 누려야 했던 당연한 일상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유전적으로 저 자신조차도 초창기에 제 몸을 극심하게 괴롭히던 전신의 관절 격통이 언제 정확히 완치되었는지 조기에 민감하게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고통이 일단 육신을 떠나가고 나면 인간은 더 이상 아픔을 의식하거나 주목할 만한 하등의 이유를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처절한 고통이 나에게서 영원히 물러갔을 때 저는 그저 이전에 없던 쾌적한 상태에 말없이 깊이 침잠해 있었을 뿐입니다.

저 역시 이미 반세기를 살며 나이가 오십(연과 반백) 고개를 넘은 사람입니다만, 과거 혼자 외롭게 첫 번째 기술 프로토타입 장비를 조립하며 밤을 지새우던 시절에는 온몸의 마디마디와 뼈마디가 육신거려 말도 못 하게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그 완고했던 관절염 고질병 역시 기기 가동과 함께 통째로 박멸되어 버렸죠. 물론 다른 사람들의 신체 특성에 따라서는 특정 부위의 관절이 저처럼 빛의 속도로 치유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 외의 다른 침침한 만성 침증들이 반드시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입니다. 저 개인의 경우, 장기간 지속되던 양측 무릎 관절의 극심한 통증이 바로 그 시점부터 완벽하게 소거되었으며, 그날 이후 오늘날까지 무려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절대 재발하지 않았습니니다. 저는 이 다중과동 발진기 기기들을 복원하고 제작하는 사업에 뛰어들지 벌써 만으로 4년이라는 성숙한 시간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과거에 저를 지독하게 몰아매던 고통의 감각이 어떤 맛이었는지조차 뇌리에서 완전히 망각해 버린 지 오래입니다.

---

## 제49파트: 진행자 — 인터넷 루머들의 가이드라인 검증

**진행자:** 방금 전 '치료 과정(세션 주기)'을 계속 언급하셨는데요. 인터넷이 결코 신뢰할 만한 정보원이 아니라는 점은 여러 차례 지적해 드렸지만, 참고 삼아 말씀드리자면 온라인상에서는 과거 조르주 라코프스키가 환자들에게 세션을 진행할 때 대개 매일 약 10분에서 15분 동안만 기기 앞에 앉혔고 이를 10일에서 15일간 꾸준히 지속했다는 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자료들에서는 그가 환자들에게 사흘 연속으로 매 세션마다 1시간 또는 무려 3시간에 달하는 충격적인 시간 동안 가동을 지속했다는 내용이 버젓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 최신 개량형 기기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이상적인 표준 세션 프로토콜은 정확히 어떠합니까? 실제 유저들의 구체적인 불편 호소와 질병 유형에 따라 어떻게 개인별로 맞춤형 일정을 설계할 수 있나요?

만약 특정 질환의 환자가 찾아왔을 때—일주일 동안 매일 고정적으로 1시간씩 앉혀두어야 합니까, 아니면 열흘 동안 매일 스톱워치를 켜고 10분씩 엄격하게 채워야 합니까, 혹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이것이 고도로 개별 맞춤화가 가능한 영역인가요,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든 유저들이 동일하게 적용받는 고정 템플릿(예를 들어 모든 사람은 일률적으로 2주간 총 3회, 매회 30분씩 진행하면 충분하다는 방식)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혹은 다다익선처럼 많이 진행할수록 무조건 좋은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마치 특정한 의학적 코스처럼, 예컨대 10일 동안 연속으로 집중 세션을 완료한 뒤 반년 동안 완전히 휴지기를 갖고 다시 복귀하여 보충 세션을 10일간 진행하는 식인가요? 우리가 반드시 이정표로 삼고 의지해야 할 가이드라인이 존재합니까?

---

## 제50파트: 엔지니어 — 우주비행사의 의념 훈련과 기기 가동 초읽기 효과

**엔지니어(데니스):** 머릿속을 복잡하게 어지럽히는 온갖 자잘한 의구심과 혼란, 그리고 인터넷상의 수많은 변형 버전들을 전부 한데 모아 뭉쳐서 쓰레기통에 과감히 던져버리십시오! 진정한 물리적 치유 효과는 기기의 전원 스위치를 켜는 **최초의 몇 초 이내**에 이미 전면적으로 발생합니다. 가동 후 오직 첫 몇 초 만에 말이죠.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당신이 스위치를 켜두고 그냥 곧바로 방으로 돌아가 따듯한 차를 마시더라도, 당신의 신체 세포底層에서는 이미 급격하고 긍정적인 자가 조율 메커니즘이 조용히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즉, 기기를 단지 '켜고' 다시 '끄는' 그 짧은 동작만으로도 일련의 생체 공명 효과는 이미 첫 발을 힘차게 내딛은 셈입니다. 이 주파수 에너지의 흔들림은 마치 그네를 타는 것과 같아서, 세션이 전반적으로 종료되고 기기 전원을 완전히 차단한 이후에도 당신의 육체 내부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명하며 메아리치듯 흔들림을 유지합니다. 실제 임상 추적 및 일상적인 관측 데이터에 따르면, 단 한 차례의 세션 진행만으로도 유도되는 이 적극적인 생체 효과는 무려 2일에서 3일 동안이나 고스란히 지속됩니다. 맞습니다, 딱 한 번만 하더라도 효과가 2~3일간 유지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약 체계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요구하신다면—우리는 전적으로 조르주 라코프스키 본인이 후세에 남겨놓은 정통 권위의 가이드라인을 백퍼센트 참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친필 문서에 명명백백하게 기술해 두었습니다: 해당 기기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용자 본인이 세션에 임할 때 반드시 스스로에게 극도로 명확하고 긍정적인 심리적 암시(mindset)를 부여해야 하며, 자신의 고차원적 사유 주파수를 '신체 치유 및 건강한 삶의 회복'이라는 주파수 상태에 정확하게 동조시켜야 한다고 말이죠.

이러한 올바른 마인드셋의 물리적 기전은 매우 경이롭습니다. 당신도 우주 항공 분야에서 우주비행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부하 심상 훈련(Mental Training)'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우주비행사의 신체가 완전히 고정되어 거시적인 물리적 부하가 전혀 걸리지 않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들이 오직 머릿속으로 극도로 생생하게 자신이 트랙 위를 광적으로 질주하고 있다거나, 푸른 잔디밭 위에서 온 힘을 다해 축구 공을 차고 있다거나, 혹은 양손으로 무거운 덤벨을 폭발적으로 들어 올리는 상상을 필사적으로 전개하기만 하면 말이죠. 그들은 단지 뇌리를 통해 순수한 의념적 사유만을 가동하고 있을 뿐인데, 놀랍게도 그들의 거시적인 근육 조직들은 대뇌의 명령에 老老實實 순응하여 모종의 세포 수준의 미시적인 생리적 반응을 정확하게 출력해 냅니다! 즉, 근육이 도출해 낸 피드백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기간 고부하 운동이 결여된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근육 세포들이 고도의 건강성을 고스란히 유지하며, 예상되었던 폐용성 근위축 증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거나 최소한 위축의 진행 정도를 무시할 수 있을 만큼 극도로 낮은 수준으로 경감시켰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인간의 육신이 고차원적인 정신적 사유 활동에 대해 보여주는 生理적 반응이 백퍼센트 실재하며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물리적 사실임을 철저하게 증명합니다. 이 결론은 현대 전위 과학계에서 이미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기정사실로 확립되어 있으며, 더 이상 그 어떤 의문의 부호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底层 의념적 기전 때문에, 사용자가 온전한 치유를 갈망하고 건강을 갈구하는 정순한 마음가짐을 품고 기기 앞에 앉아 있을 때, 이 긍정적인 뇌파 신호는 기계에 의해 기하급수적인 생체 공명으로 증폭되어 가장 신비롭고 완벽한 최상의 임상 효과를 유도해 내게 됩니다.

---

## 제51파트: 진행자 — 시간적 길이의 물리적 상대성

**진행자:** 그러니까 결국 제가 앞서 질문드렸던 핵심 요지에 답을 주신다면, 기기 앞에 고작 5분에서 10분 동안 앉아 있든 아니면 지루하게 1시간 내내 앉아 있든 물리적으로는 더 이상 그 어떤 결정적인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심지어 5분과 15분 사이의 시간적 격차조차도 미미한 수준입니까?

---

## 제52파트: 엔지니어 — 깨진 사발의 비상 프로토콜 및 천연 항생 성분 옹호론

**엔지니어(데니스):** 제가 왜 당신에게 명상과 정순한 심리적 동조의 중요성에 대해 이토록 긴 지면을 할애하여 강조했겠습니까! 환자를 최상의 깊은 명상 상태에 온전히 도달하게 만들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외부 조건이 무엇일까요? 반드시 우리의 안내 설명서에 엄격하게 규정된 바와 같이 이 전체 명상 프로세스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치유와 건강 회복에 대한 정순한 사유 의념들이 환자의 깊은 잠의大本영인 잠재의식 속으로 완벽하게 침전되도록 유도해야 하며, 이 핵심 조율 기간에는 불필요한 일체의 언어 소통과 구두 대화를 철저히 차단해야 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이러한 깊은 잠재의식 조율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결코 당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장황한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우리는 오랜 탐색과 실전 임상을 통해 도출해 낸 명확한 양화 표준을 정립했습니다: 오직 **5분**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 5분이라는 시간은 기기가 당신의 신체 세포에 충만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보충해 주기에 완벽한 시간인 동시에, 사용자 본인이 아무런 독촉이나 방해 없이 평온하고 상서로운 깊은 명상 상태 속에서 이 복된 에너지를 가장 올바르게 온전하게 수용 및 흡수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일상적인 건강 관리 및 현재의 웰빙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보편적인 시나리오 하에서는, 특별한 비상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매 2~3일마다 단 한 차례 **15분** 정도의 일반 명상 세션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완전하고 충분합니다. 장난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평소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무의미하게 허비하는 시간은 이보다 수백, 수천 배는 더 많은 것입니다! 반면 여기서는 매 3일마다 단 5분 정도만 시간을 내어 기기 앞에 앉아 있으면 될 뿐입니다.

그러나 만약 특정 환자가 마주한 국면이, 제가 평소에 자주 비유하듯 '밀바닥이 깨져서 에너지가 새어 나가는 도자기 대접'과 같은 매우 엄중한 조난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즉, 당신이 이쪽에서 기계를 가동하여 생명 에너지를 사발에 가득 들이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기저 체력이 너무나 취약하여 에너지가 사발 바닥의 균열을 타고 광적으로 밖으로 새어 나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깨진 사발'의 딜레마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극도로 수동적이고 위태로운 위기 국면 하에서는, 환자의 육체 세포에 지속적이고 빈틈없는 고빈도 에너지 포화 공급 및 무간단 보급을 전개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보유한 막대한 양의 극도로 성공적인 만성 치유 임상 데이터들을 살펴보면— 상태가 위중했던 환자 군들은 다음과 같은 매우 하드코어한 돌파형 프로토콜을 밀어붙였습니다: 매일 3회 세션을 가동하되, 매회 스톱워치를 켜고 정확히 10분씩 딱 채워 진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증 질환을 겨냥한 고강도 돌격형 코스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수 코스를 구체적으로 며칠 동안 사투를 벌이며 지속해야 할까요? 정답은 명쾌합니다: 당신의 메인 의학적 치료가 병원 전선에서 며칠 동안 치열하게 사투를 지속하느냐에 따라, 우리 기기가 에너지 차원에서 당신의 육체 세포를 방어하고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전개하는 차원 다른 하이테크급 보조 조력 역시 단 하루의 중단도 없이 철저히 동반 추진되어야 합니다.

결코 양쪽의 치료를 인위적으로 단절시켜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전통 주류 의학의 정밀 타격 수단과 우리 기기의 생체 에너지 무장을 한데 묶어 강력한 '쌍련 병진 협동(tandem system)' 시스템으로 동시에 밀어붙여야만 치유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당신은 한편으로는 순수한 세포底层 에너지 차원에서 육신에 가장 견고한 방패를 채워주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전통 의학적 수단을 통해 물리적 병소 부위를 치료하는 것이죠.

방금 전 당신이 언급하신 화학 합성 항생제라는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죠. 확실히 요즘 언론의 무차별적인 공포 마케팅 때문에, 항생제는 현대 대중의 보편적 인지 속에서 거의 '만약의 근원'과 동의어로 전락해 버린 상태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에 대해 완전히 반대되는 독자적인 견해를 견지하고 있으며, 저의 이 입장 역시 단순히 머리를 짜내어 만든 것이 아니라 매우 견고한 생물학적底層 로직을 기반으로 확립된 것입니다.

인류는 길고 장구한 진화의 사슬 속에서 지구상의 다른 모든 야생 동물들과 생물학적으로 하등 다를 바 없이 진화해 왔으며, 우리 육신과 광의의 천연 항생제 성분 사이에는 사실 단 하루도 끊어진 적이 없는 상시적이고 밀접한 접촉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매일 음식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막대한 양의 천연 항생 성분들을 흡수하고 소비하고 있으니까요. 만약 대자연이 식물에게 하사한 강력한 '식물 살균 물질'인 피톤치드(phytoncides)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우리 유기체의 취약한 육신은 땅 위의 흔하디흔한 악성 박테리아들의 광적인 포위 공격 앞에 단 한 세션도 버텨내지 못하고 완전히 파괴되었을 것입니다.

진균이나 곰팡이의 분비물들—그것들은 본질적으로 살상을 위해 정교하게 조제된 식물 체내의 화학적 무기(독소)이며, 대자연이 식물에게 장착해 준 천연의 방어 방패입니다. 이 단단한 독소 방패가 식물 세포를 철통같이 수호하고 있기 때문에, 땅속의 온갖 파괴적인 박테리아들이 연약한 식물을 뿌리째 갉아먹어 흔적도 없이 소멸시키지 못하는 것이죠. 즉, 대자연 속의 모든 식물은 본래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처절하고 완강한 자위반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진흙 땅속에 굴러떨어진 야생 과일 한 알이 가혹하고 복잡한 미생물 환경 속에서도 장시간 부패하지 않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과일이 자신의 피톤치드를 주변으로 끊임없이 고농도로 방출하며 유해균의 침투에 완강히 맞서 싸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원초적인 '항생(antibiotic)'의 법칙입니다... 현대 제약 공업이 약국 카운터에서 당신에게 판매하는 저 수많은 화학 합성 항생제들은, 거의 백퍼센트 이 천연 식물의 피톤치드 분자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인공적인 화학 공정을 통해 모방하고 업그레이드하여 인위적으로 복제해 낸 산물들에 불과합니다. 현대 약리학과 거대 제약 자본이 지구상에 탄생하기 전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은 일상적인 식단 속에서 가히 '킬로그램(kg)'이라는 엄청난 단위로 이 순 천연 항생 성분들을 매일 광적으로 섭취해 왔으며, 이는 인류의 생물학적 특성에 가장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한 생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본래 다양한 미생물들의 끊임없는 침탈에 맞서 원형질체, 박테리아, 치명적인 진균의 공격을 최전선에서 물리치며 영위하던 상시적인 투쟁의 일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전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자연의 섭리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가 누려야 할 가장 순수하고 본연에 충실한 천연 식단 모드이며, 마치가공되지 않은 태고의 시골 대자연 속에서 직접 생활하는 것과 같은 깨끗한 환경입니다.

당신은 평소에 아주 흥미로운 디테일을 눈치채지 못하셨습니까—우리가 즐겨 먹는 전통 호밀 호밀빵(black bread)은 식탁 위에 아주 오래 방치해 두더라도 결코 곰팡이가 피거나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죠. 왜냐하면 호밀이라는 원자재 자체가 태생적으로 극도로 강력하고 탁월한 천연 피톤치드 방부 효과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늘은 또 어떻습니까—독한 감기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온몸을 엄습하여 육신이 사경을 헤맬 때, 그저 생마늘 몇 쪽을 씹어 삼키는 것만으로도 허약해진 육체 전선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강력한 면역 효과를 안겨다 주며來犯하는 바이러스의 맹공격을 분쇄해 버리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대자연이 인류에게 직접 하사한 신급 피톤치드 물질이며, 그 종합적인 방어 활성화는 어떤 면에서는 약국 카운터에서 비싼 돈을 주고 사 오는 그 어떤 화학 합성 서양 의학 항생제보다도 훨씬 월등합니다.

그리고 이 현실 속에서, 이러한 모순적인 대조는 너무나 밀착되어 있어서 우리는 대개 몸이 아프면 약국으로 달려가 줄을 서서 화학 공업 알약을 구매하는 데만 길들여져 있을 뿐, 본질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거나 오히려 훨씬 뛰어난 핵심 치유 컴포넌트가 지금 이 순간에도 식탁 위 과일 쟁반에 고요히 누워 있다는 사실을 완벽하게 간과하곤 합니다. 문자 그대로 신선한 채소나 과일의 '껍질' 속에 그 위대한 물질들이 고스란히 함유되어 있는데 말이죠.

과일의 껍질은 본질적으로 식물이 외부의 복잡한 미생물 생태계로부터 자신을 수호하기 위해 고농도의 피톤치드로 구조해 낸 견고한 방패입니다. 당신이 식칼로 그 껍질 방패를 단 한 번 베어내어 파괴하는 순간—보호막을 상실한 과육은 단 몇 시간 만에 급격하게 부패하기 시작하죠, 맞습니까?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이제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가장 정순한 피톤치드 방부 성분들은 전부 과일의 가장 바깥쪽 껍질 층에 집중 배치되어 군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 말을 믿으십시오: 앞으로 사과나 오이를 드실 때는 가급적 껍질을 벗기지 말고 통째로 껍질과 함께 대구 물에 삼키십시오. 이러한 천연 섭취 방식에 순응한다면, 세간에서 떠드는 이른바 항생 성분에 대해 그 어떤 무의미한 공포심도 품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요즘 미디어에 등장하는 사이버 전문가들이 대중을 상대로 매일 공포 마케팅을 펼치며, 항생제를 자주 먹으면 신체에 심각한 약물 내성(기기에 익숙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협박하곤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일련의 허구이자 철저한 거짓말,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인류라는 독립적인 포유류 종이 지난 200만 년이라는 장구한 진화의 사슬 속에서, 단 하루라도 천연 피톤치드(항생 물질)를 대량으로 흡수하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고대의 천연 항생 성분은 본래 생명 유지와 대사의 기본 패러다임이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 천연 성분들에 대해 결코 약물학적인 '내성 습관'을 형성하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대자연 순리에 부합하는 삶의 본질입니다. 물론 실험실에서 가혹한 화학 공정을 거쳐 정제하고 마개조해 낸 산업용 화학 약리 항생제라면—그것은 성격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결코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당신에게 이토록 장황하게 설명해 드린 핵심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만약 이러한 본연의 순수함으로 귀환하는 천연 생활 방식이 당신에게 비교 불가능한 건강 보너스를 확실하게 안겨다 줄 수 있다면—여기에는 엄격하고 깨끗한 천연 식단 구축(즉, 당신이 일상 속에서 다양한 종류의 식물 피톤치드, 한방 약초, 중복되지 않는 다채로운 균형 영양을 능동적으로 섭취하는 것), 산야의 가장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는 것, 그리고—당신의 골격과 근육 조직에 충분한 물리적 대사 부하와 운동 단련을 선사하는 것(이것 역시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핵심 요해처입니다. 당장 엉덩이를 사무실 의자에서 떼고 일어나십시오! 가만히 앉아 매일 스마트폰만 죽어라 쳐다보는 행동을 즉시 중단하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몸을 격렬하게 움직여야 합니다!)—왜냐하면 생명의 가장 본질적인 물리적 정의는 바로 멈추지 않는 '움직임(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합리적이고 다채로운 천연 영양 공급이, 조르주 라코프스키의 평생의 염원이 응축된 우리의 이 정밀 기기와 완벽하게 동맹을 맺고 동반 추진되어야만 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단 중, 당신의 연약한 육신을 대변하여 악성 질병의 마수로부터 방어하고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유효한 카드라면, 당신은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그 모든 카드를 전면적으로 동원해야 마땅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실제 임상에서... 주류 현대 의학의 치료 수단과 병행되는 '쌍런 병진 협동(tandem system)'

시스템 속에서 이미 단 한 점의 의문도 없는 완벽한 정답을 제출했으며, 독보적인 임상 평판을 획득해 냈습니다. 즉, 당신은 대형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주류 치료 프로그램을 성실하게 이행하되, 집으로 돌아와서는 우리의 이 에너지 조력자를 동시에 가동해 주면 됩니다—그렇게 되면 질병의 완치율과 전반적인 신체 복원 효율성은 가히 차원 다른 수준으로 미친 듯이 수직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

### 제53파트: 진행자 — 방송 마무리 인터뷰 및 감사 인사

**진행자:** 데니스 씨, 오늘 바쁘신 와중에도 저희 스튜디오 방송실을 찾아주셔서 이토록 놀라운 기기와 가히 독창적인 하이테크 기술에 대해 상세히 베일을 벗겨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체 대화 과정이 우리의 안목을 크게 넓혀주었고 정말 흥미진진한 시간이었습니다. 발명가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

### 제54파트: 엔지니어 — 미디어 전파를 통한 전설적 기술 부흥 축원

**엔지니어(데니스):** 저를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실 이 방송 플랫폼의 끊임없는 노력과 광범위한 홍보 덕분에, 한때 역사 속에 완전히 매몰될 뻔했던 이 전설적인 기술의 부흥 사업이 오늘날 이토록 경이롭고 활기찬 걸음으로 전속력 전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모두에게 행운이 따르기를 기원합니다!

---

### 제55파트: 진행자 — 끝인사

**진행자:** 감사합니다.